

억압 없는 문명은 가능한가? -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 산책

우리는 예기치 않은 종말이 오기 전에는 좋은 삶든 문명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문명은 운명이다. 에로스 역시 운명이다. 왜냐하면 종족 보존본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든, 에로스의 인력(力)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유기환, 에로스와 문명을 바라보는 두 시각

1. 마르쿠제 사유의 근원지,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지성사적 위상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인류를 우주의 중심에서 '추방'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등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은 인류를 결정적으로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인간은 자신의 주체적 선택에 따라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의식 저 깊숙이 숨어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으로부터 자유의지, 선택, 책임감, 결단, 자발성 같은 도덕적 개념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런 전복적 특성 때문에, 정신분석 용어는 처음에는 무슨 사이비 마법의 주문처럼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학술적 용어를 넘어서 일상어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주의는 수 천 년 동안 인간 마음의 병을 다뤘은 성직자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서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성직자가 신과 인간을 매개한다면, 정신 분석가는 무의식과 인간을 매개합니다. 이런 성격을 감안하면, 정신분석은 단순히 의학일 뿐만 아니라 철학이자 심리학이자 문화이론이자 사회이론입니다. 아니, 그것은 차라리 방대한 체계를 갖춘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썰'은 예술가들에 의해 민감하게 흡수되고, 마르쿠제의 사상 체계에는 물론, 20세기 거의 모든 사회-문화이론에 지양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지적 헤게모니를 놓고 마르크스주의와 길항-삼투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결정하고 결정되는 인과 사슬의 맨 왼편에 생산력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프로이트는 그 자리에 **성욕으로 대표되는 무의식**을 놓았습니다. (아들러는 성욕의 자리에 권력충동을 집어넣고 신경증의 원인은 열등감이라고 주장했고, 칼 융은 그 자리에 집단무의식으로 서 원형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소유하고 의식하고 투쟁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보았듯이, 프로이트도 인간이 마냥 성욕의 노예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욕은 이성(자아)에 의한 통제를 통해서 문화 창조의 원천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인간의 심리구조를 분석하는 기본 개념 : 이드(Id)는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며 쾌락원칙을 추구한다면, 자아(Ego)는 인간의 성격 안에서 합리적 요소를 뜻합니다. 그것은 현실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성된 초자아(Superego)는 도덕적 측면의 성격을 뜻합니다. 후기 프로이트는, 인간 본능의 주류를 삶과 죽음의 본능으로 다시 재편합니다. 삶의 본능(Eros) 가운데 인간의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리비도라 불리는 성본능**이고,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thanatos)는 인간에게 공격성, 잔혹성, 자살, 살인 등으로 드러납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성욕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생식기의 네 단계를 거치며, 개인이 어떤 발전 단계를 원만히 거치지 못할 때, "고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 불안은 본능적 충동으로부터 오는 절박한 위험을 자아에게 경고하는 신호역할을 하지요. 불안에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등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자아가 불안에 처해있을 때 승화, 억압, 투사, 전위, 합리화, 반동형성, 퇴행과 같은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프로이트의 빛과 그림자 : 그는 화려하리만큼 아름답고 명료한 빛나는 산문을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대한 천착은 그를 비관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서 너무나 큰 비합리적 힘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그 비합리적인 생물학적 본성과 합리적인 사회적 욕구 사이의 투쟁의 산물이 인간의 갈등과 고통이라는 생각, 인간은 문화진보의 대가로 죄책감을 늘리고 행복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등이 그 비관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합리한 인간의 내면에 처음으로 이성의 빛을 비추었고, 그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2. 마르쿠제의 현실 진단¹⁾ : 현대 문명(사회) 속의 인간 조건

현대사회는 자본의 지속적 축척과 교환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삼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비판적 의식은 사라지고 **체제 순응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마르쿠제가 훗날 ‘1차원적 사회’라고 명명한 현대 사회는 비판의식이 마비되고 (노동자의 계급의식 역시 쇠퇴하여 그들의 혁명성도 점차 약화되고), 오직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만 관심을 갖는 **“기술적-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사는 인간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정당하지 부당하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타자를 소외시키는지, (또 역으로) 자신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쉬 유보됩니다(그리고 “가치의 중립성”이란 개념을 제멋대로 끌어다가 이런 유보를 변호하기까지 하지요).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적인 것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비판적-저항적 시민의 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됩니다. 아니, 배척됩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안락함,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 국민을 울리고 웃기는 대중문화의 흡인력과 화려함은, 현상의 이면을 뒤집어 보려는 **비판적 사유를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취향과 기호마저 획일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비판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1차원적 인간”들이 양산되고, **이성의 주요 기능인 비판적-부정적 사유와 같은 “2차원적 사유”는 영양가 없는, 쓸모도 쓸데도 없는 탄죽 걸기로 폄하되고 맙니다.** 자신의 순수한 내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과된 자유라는 점에서, 일차원적 사회에서는 자유조차 관리되는 자유일 뿐이라는 게 마르쿠제의 생각입니다.

마르쿠제는 이런 세상은 파시즘 체제 하의 세상 못지않게 위태로운 세상이라고 우려합니다. 파시즘 체제에서는 **직접적인 강압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이런 1차원화가 강요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대중 매체와 문화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조작(루카치의 용어로 **“부드러운 조작”**)을 통해서 **은밀하게** 1차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내세운 사회적 통제와 공세는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세계(the inner world)까지 침투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강제력은, 양심으로 흡수되고 개인의 무의식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욕망과 도덕관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비판정신은 비효율적이고 따라서 낙후된 사고방

1) 마르쿠제의 현실인식은 그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공통된 인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흔히 상부구조로 불리는 (자본주의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그것의 모순과 허위에 관심을 둔다. 2) 자본주의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는 실증주의의 도구적/기술적 이성에게 맞서 <부정적 사유 negative thinking>의 부활을 추구한다. ■ 기존현실의 당연함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으로 지양하는 힘으로 <부정의 정신>의 강조. 3)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인간 일반의 입장에서 사회변혁을 향한 혁명적 실천의 문제를 다룬다.

식으로 치부되고, 기술적 도구 합리성이라는 허위의식이 마치 참된 의식인 양 행세하는 세상이, (말처럼 표현하면) 천박하고 저급한 쾌락이 비판적 사유와 정신적 쾌락을 몰아내는 세상이, 일차원적 사유와 행동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마르쿠제의 눈에 비친 현대 문명의 초상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기존의 주장과 행위를 비판하면서 이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사유와 소망과 목적들은 배제되거나 기존 체제의 용어로 위축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유와 소망과 목적은 기존 질서의 기술적 합리성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되고 통제”되는 세계입니다.

마르쿠제는 이런 현실이 심리학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독립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심리적 범주가 이제는 정치적 범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지배세력이 인간에게 비본질적인 욕구를 본질적인 욕구인양 각인시켜서 체제 긍정적 개인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율적이고 개체화되어 있던 심리과정은, 개인이 사회적 조직과 제도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회적 심리학**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병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체 사회의 병을 반영하고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병의 치료는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회적 병리의 치료에 의존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진단을 통해서, 마르쿠제는 개인의 비판적 의식을 위축시키고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인격을 획일화하여 체제 순응적으로 만드는 현존 질서를 변혁하려면, 개인의 심리를 규정하고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신분석 앞에 “사회학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것도, 개인적인 치료보다는 정신분석을 억압과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겠다는 그의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마르쿠제의 사회학적 정신분석 : 프로이트 이론의 수용과 변용²⁾

마르쿠제는 비판적-변혁적 세력과 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비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으려고 한 평생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에로스³⁾와 문명⁴⁾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지렛대로 삼아 **유토피아 의식을 복원**하려는 마르쿠제의 문제의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억압 없는 문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유토피아 추구의 정신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주목을 끄는 대목은, 프로이트의 주장을 <본능의 긍정적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이트에 의거하여 극복하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우선 마르쿠제가 본 프로이트의 논지를 간추리면, ① 인간을 쾌락 지향적이다; ② 그것은 본능적인 욕망이다; ③ 그 쾌락은 사회 질서에 유해하다; ④ 거기에서 만족의 억압이 행해지며 터부가 생겨난다(예컨대 근친상간의 금지); ⑤ 만족의 포기는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이트의 견해를, 마르쿠제는 ① 인간은 쾌락 지향적이다; ② 그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다시 말하면 억압이 없으면서도, 조화로운 삶은 가능하다(가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뛰어 넘으려고 합니다. 그 근거로서 마르쿠제는 “프로이트의 이론적인 개념 자체가 억압 없는 문명에 대한 그의 거부를 반대”하고 있으며, “억압된 문명의 성과가 억압의 점진적인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³⁾ 요컨대 마르쿠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철학적으로** 더 밀고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정신분석을 ‘정신분석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마르쿠제의 프로이트 이해는 에리히 프롬으로 대표되는 신프로이트학

2) 프로이트의 ‘에로스’ 개념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은, 권택영, 에로스³⁾와 문명⁴⁾의 밀원관계 - 프로이트와 문명의 혼혈성』(『코리안 이마고』)을 읽어 보시라. 서구 문화와 관련된 ‘두터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욕망이 크다면 프로이트를 건너뛸 수는 없는 일이다. 위 글은 그 노고(勞苦)를 다소 줄여준다. 다소 찬찬히 읽으면, 현대문명에 대한 니체의 평가를 ‘추이해’하는 데에도 적잖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마르쿠제, 김인환, 『에로스³⁾와 문명』(나남) p. 25 이하의 『에로스³⁾와 문명』의 쪽수는 이 번역본의 쪽수를 말함.

파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프로이트학파는 프로이트가 생물학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자신들은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신분석학을 수용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런데 마르쿠제는 이런 프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이므로 그것을 굳이 사회적, 문화적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르쿠제는, 문명이란 <즉각적이고 완전한 만족에 대한 억압의 산물>이라는 프로이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본능적 만족을 억압하게 하는 것은 식량의 희소성(ananke)입니다. 인간이 희소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할 때, 바로 이때부터 현실원칙이 쾌락원칙을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 만족의 억압을 **내면화**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쿠제는 기본억압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하여 억압의 기원을 개인적 차원과 계통적 차원으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현실원칙에 의한 쾌락원칙의 대체는 개인에게도 인류에게도 커다란 외상(trauma)이지만 생존을 위해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억압**은 부모(가정)나 교사(학교)에 의해서 강요된 현실원칙에 복종하는 유아기 초기에 나타납니다. 유아의 쾌락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서 표현되고 그 쾌락에 대한 억압이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수행됩니다. 요컨대 개인은 유아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현실원칙에 대한 개인의 복종이 끊임없이 재연됩니다. 이처럼 마르쿠제는 사회화를 일종의 억압의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은 그가 마르크스의 지적 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에게 사회화는 특수한 계급이익을 보편적 일반이익인 양 장식하는 허위의식의 전파과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편, 알튀세는 마르크스의 이런 문제를 이어 받아서 사회화를 담당하는 학교, 종교, 국가기구를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쿠제는 계통적 차원의 억압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의 환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인류의 시원에까지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친부살해'이론입니다. 원시유목부족에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생산하고, 여자를 소유하는 권력자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권력자 아버지는 아들들로 하여금 노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쾌락의 억제, 만족의 억압을 강요합니다. 쾌락을 독점한 가부장에 대한 증오는 아들들로 하여금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가부장을 살해하고, 형제씨족의 지배를 확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 형제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금기와 억압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형제들의 경쟁이 사회를 파멸시킬 정도로 격화될 때, 그때 만족의 포기를 수반하는 일종의 사회계약이 출현하는 데, 도덕과 법의 출현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문명사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심리학적 사건이 발생하는 데, 그것은 **죄의식의 발전**입니다. 아버지 살해에 대한 죄의식은 살해한 아버지를 **신격화**로 이어지고, 아버지의 신격화로 인해 탄생한 종교적 감정은 씨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살해를 현실적으로 되풀이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속죄양을 바치는 희생제가 생겨납니다) 금지와 억압을 내부에 투사()하여 리비도의 일부를 노동력으로 승화하게 만듭니다.

프로이트의 <가족 로맨스>

이 산책에서만 아니라 인문학 공부에서 중요한 결절점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이트 이론의 '**가족 로맨스**'를 부연해 붙여 둡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불만과 허무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탐구했습니다. 왜 신경증 환자였냐고요? 그들은 가장 불만을 다스리지 못하는 밀려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가장 궁금해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왜 늘 행복해지려고 애쓰지만 완전한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은 무엇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프로이트의 탐구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치료가 과학이 되기를 원했지만 정신분석이란 기억을 통해 마음을 읽는 작업이기에 그는 가설을 세우고 추론이 개입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잠들던 시절, 아이는 그녀(어머니)와 자기사이에서 절대적인 평화와 아늑함을 느낌

니다. 그녀가 나의 결핍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존재이듯이 나는 그녀의 완전한 연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느 날(4~5세) 둘 사이를 가로 막는 최초의 타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가 이미 그녀의 연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타자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순간이 됩니다 (인류에게는 원죄를 짓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낙원이 상실되는 순간이니까요! 아이는 이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려고 애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 것이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게 <아버지>는 <사회의 법>이고 <문명의 원초적 상징>이며, 곧 <현실원칙>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무리 현실원칙을 받아들여도 해도 한 번 맛본 <더 없이 그윽한 행복= 福>의 순간을 잊지도, 포기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낙원으로 돌아가고픈 갈망을 끈질겨서 꿈으로, 백일몽으로, 말실수로 나타나고 예술과 종교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승화될지라도 소망은 결코 완벽하게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출발점은 바로 이 셋이 이루는 **가족 로맨스**입니다. 이런 '가족로맨스'를 알아야만, 친부인 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 눈을 찌르고 참회하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에 프로이트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그 신화는 인간의 **무의식적 소망**과 비극을 가장 잘 그려낸 신화였고, 그 소망이 단념되지 않고 귀환을 꿈꾸며 남아 있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개체 차원에서 본능이 어떻게 억압되는지를, 바로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활용하여 설명했죠.

마르크제는 문명에 의한 에로스의 억압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억압에 머문다면 문명과 에로스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갈등은, 문명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과도한 리비도의 승화를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문명은 노동에 근거하고 노동력의 획득은 리비도의 승화(sublimation)에 근거한다. 리비도의 승화는 필연적으로 비성화(desexualization), 즉 에로스의 약화를 야기합니다.⁴⁾ 리비도의 승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건설적인 에로스의 자리가 좁아지고, 파괴적인 타나토스의 자리가 넓어집니다. 파시즘의 예가 보여주듯이, 파괴적인 타나토스의 자리가 넓어지면 결과는 문명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문명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마르크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도입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제의 『에로스과 문명』은 마르크스의 로고스와 프로이트의 에로스의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프로이트적 마르크스주의(Freudian marxism)**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제는 모든 노동이 비성화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이 불쾌하고 억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소외된 노동입니다. 마르크스의 필요노동이나 예술적 노동처럼 소외되지 않은 노동은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제는 기본억압이 아니라 과잉억압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제는 마르크스처럼 노동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구분합니다. **필요노동**이란 인간의 생존이란 목적에 필요한 노동을 말하고, **잉여노동**이란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환되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뜻합니다. 즉 마르크스가 **소외된 노동**이라고 부르는 노동입니다. 이 잉여노동이 가능하도록 욕망의 만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마르크제는 과잉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억압은 마르크스의 필요노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희생인 반면에, 과잉억압은 인간 사회 어디서나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수하고 역사적인 과잉억압을 일으키는, 즉 잉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수한 현실원칙이 수행원칙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제가 문제 삼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현실원칙(필요노동)과 쾌락원칙(에로스)의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이 아니라, 수행원칙(소외된 노동)에 의한 쾌락원칙(에로스)의 과잉억압입니다.

4) "문화는 끊임없이 승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문화는, 문화의 건설자인 에로스를 약화시킨다. 약화된 에로스에 의해 비성화는 파괴적인 충동을 풀어 놓는다. 죽음본능이 생명본능을 지배하려는 본능의 해리() 작용에 의해서 문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자제를 근원으로 발전하던 문명이 자기 파괴로 기울어진다." 『에로스과 문명』, pp. 85-86.

따라서, 마르쿠제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의 비관주의였습니다. 프로이트의 달린 세계에서 인간은 그의 콤플렉스에 영원히 얽매어 있으며, 완전한 만족은 영원히 얻어지지 않습니다. (김현 선생님의 평가에 의하면, 유대인 특유의 종말론적 세계관에 사로 잡혀 있던, 20세기 초 서구 중산층의 달린 세계관의 표현이든, 프로이트는 사실상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문명이 이루어지는 과정보다 문명이 해방되는 과정에 더 깊은 관심을 쏟는 마르쿠제는 과거보다 미래에 시선을 던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억압 없는 문명은 인간이 이룩해야 하는 최선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억압 있는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억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명은 그 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라면, 프로이트의 가설을 부정해도 괜찮다.”(김현, 『현대비평의 양상』) 이것이 마르쿠제의 정신분석의 기본 입장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노고와 그것을 꼭 얻어야 한다는 욕구는 마르쿠제에 의하면 억압적인 것이며, 그런 뜻에서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놀이나 자랑 혹은 구경거리에 대한 집착(231쪽)은 그러나 그런 현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그 자유는 동시에 억압적 현실에 대한 “위대한 거부(the Great Refusal)”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거부는 해방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서 마르쿠제는, “생식적 성욕의 억압적 질서”에 반항한다는 점에서 프로메테우스와 대립적 위치였다 오르페우스와 나르키소스를 내세웁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억압을 통한 노고와 생산성의 진보에 대한 문화적 영웅>입니다. 그는 생산성과, 삶을 정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 노력은 그러나 비생산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은 육체의 절단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현실원칙에 지나치게 사로잡힘으로써 그는 자연적인 생산성을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열반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의 생산성은 인위적이고, 필요에 근거한 생산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간을 뜯기게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르페우스와 나르키소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세계에 대한 위대한 거부입니다. 그들은 <유쾌함과 충족의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노동을 평화롭게 종결 시키며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과 자연을 통합합니다. 그들은 유희(놀이)가 노동이 되고, 노동이 유희가 되는 사회인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에로스라는 생산적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제는 여기서 현실원칙에 대한 쾌락원칙의 우위, 프로메테우스적인 것에 대한 오르페우스와 나르키소스적인 것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오르페우스는 해방자이자 창조자로서 시인의 원형입니다. 그는 억압 없는 질서의 창조자이며 예술, 자유, 그리고 문화가 그 자신 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노래이며, 그의 일은 놀이입니다. 나르키소스는 타인이나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 자신보다 그 자신의 에로스를 더 사랑합니다.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와 흡사하지만, 그것은 열반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안식과 휴식의 상태입니다. 나르키소스의 삶은 미()의 삶이며 그의 존재는 명상입니다. 마르쿠제는 이들의 이미지는 새로운 현실을 드러내며, 현실원칙이 새롭게 추구되어야 심미적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쁨과 만족의 상징인 그들의 세계에는 억압 없는 고요와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며, 수행원칙을 지탱하는 질서를 거부하는 세계입니다.

4. 효용성의 세계와 길항하는 마르쿠제의 ‘아름다움의 세계’⁵⁾

5)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의 내용이 손에 잘 안 잡히는 분들은 문헌병 교수의 마르쿠제의 생물학적 혁명, 을 읽어 보시라. 텍스트의 내용을 잘 축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하여 찾아 읽을 수 있는

현실원칙은 인간의 역사적 발전 안에서 부단히 재정립되지만 쾌락원칙에 대한 억압은 결코 완성된 것이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란 단 한번으로 자연 상태를 종식시키지 않고 되풀이 된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억압된 것은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다(소위 “억압된 것의 귀환”). 그래서 억압은 그치지 않고 되풀이 됩니다. 즉, 억압은 역사적 현상입니다. 억압에 의한 본능의 변형은 영구적인 생존경쟁으로 강화되고 지속됩니다. 본능의 변형을 강요하는 결정적 동인은 경제적 것(“재화의 희소성”)입니다. 그러므로 일(=노동)이 불가피해집니다. 일은 결핍의 극복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삶을 지탱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그들의 에로스의 발산을 성적 쾌락에서 노동(작업)으로 돌립니다. 일은 에로스의 <합리적> 이용으로 간주되고, 일하는 동안 쾌락은 단념되고 정지됩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은, 현실원칙이 강요하는 쾌락원칙의 단념인 셈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존재양식이고,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의 현실원칙은 수행원칙으로 변형되면서단지 더 많은 경제적 생산과 효율성을 얻기 위해 (재화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노동의 합리적인 조직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인간은 그만큼 과잉 억압됩니다. 즉 현대자본주의의 지배 하에서 수행원칙은 문명 자체의 지속에 필요한 만큼보다 더 큰 본능의 억압을 요구하는 특수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 정도에 따라 인간은 분류되고 이런 분류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이미 설정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수행원칙은 과잉억압과 함께 마르쿠제가 프로이트 이론을 변형하는 데 기여한 두 핵심개념입니다. 수행원칙은 현실원칙의 지배적인 역사적 형태입니다. 즉 현실원칙의 역사적 변종인 셈이지요. 프로이트는 현실원칙은 자연과 사회 일반을 포함하는 환경에 본능적 형태를 적용시켜야 하는 필요성의 인식을 뜻하지만, 마르쿠제는 현실원칙이 상이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원시인에게나 현대인에게 똑같은 기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현실원칙은 수행원칙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과잉억압은 사회적 지배에 필요한 제한을 가리킵니다. 즉, 인류의 문명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억압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지배와 관련하여 생기는 억압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를 뜻합니다. 마르쿠제는 일부일처주의 가족제도의 영속화가 필요로 하는 본능의 편향과 변형, 위계적 분업화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회의 통제 등을 과잉억압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수행원칙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의 자기실현이 아니라 노예화의 원천이고 그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노동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장치(제도)를 위한 소외된 노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제도는 개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굴종해야만 하는 독립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지 않고 이미 제도의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인 거죠. 이걸 마르크스가 소외라고 특징지었던 자본주의 제체 안에서의 인간 존재양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기존 질서에의 순응은 인간의 본능구조를 변경시키고 재구성합니다. 본능에 부가된 제한은 외적인 객관적 힘으로 개인들에게 작용합니다. 사회적 강제력은 양심으로 흡수되고(내면화) 개인의 무의식 안으로 스며들어서(내사) 그 자신의 욕망과 도덕관으로 작동합니다.

현실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대상은 언제나 효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가치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상은 <있는바 그대로>의 것입니다. 장미는 담배 파이프를 만들라고 그 뿌리를 드리우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효용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비효용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전도된 시선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전도된 시선이란 대상의 효용성보다 대상의 아름다움, 진정성에 주목합니다. 나아가 마르쿠제는 이렇게 쾌락(즐거움)이 혁명의 기본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진술처럼

논문이다.

보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하겠습니다. 세계를 효용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 거기에서는 생산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세계는 그 세계를 거부함으로써, 세계 변혁의 한 표상이 됩니다.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마르쿠제는 『에로스 와 문명』에서 “꽃과 샘과 동물은 그들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가 아름다움으로 흐른다. 오르페우스적이고 나르키소스적인 에로스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해방된다. 자연의 사물은 그들 자신인 것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제가 말하는 아름다움을 장식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기존 세계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인식의 범주입니다. 반면에 장식미란 기존 세계의 미 감각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다시 말해 미의식을 억압하는 억압체일 뿐입니다. 사람이 흔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그리지 않거나 다수의 사람이 올바른 체위라고 생각하는 체위로 성애를 즐기지 않으면, 변태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수행 원칙을 수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마르쿠제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이런 장식적인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전체를 지배하는’ 아름다움이며, ‘지각과 감정의 양식에 있어서 전체적인 혁명을 가정합니다.’

앞질러 말하는 셈인데, 마르쿠제는 억압 없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그런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비설정이 꼭 한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이 호소력을 띠는 이유는 그것이 혁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정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효용적 관점에서 대상을 이해하면 인간 존재를 사물화하게 된다는 전언(messages)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해방이 문명의 거부가 아니라 **성숙한 문명을 토대로만 가능하며, 이 때 해방의 기준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본능의 보편적 충족**에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소박한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문명 속에서 해방을 추구한 사상가였습니다.

대상의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나 쓰임새에 주목하게 되면 그 대상 자체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지요.) 대상의 교환가치에 중요성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시장을 위한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시장을 위한 생산이란, 물건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교환가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런 쓰임새나 교환가치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생산한다는 것은 노력의 낭비입니다(베버의 소명 의식과 연관해서 말하면, 심지어 신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의 유용성이나 교환가치에 주목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억압이, 사회학적 용어로는 소외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결과를 향유할 때, 소외나 억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생산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것과 바꾸기 위해 어떤 것을 생산합니다. 혹은 생산하는 것의 대가를 받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것에서 그는 소외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는 억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교환가치를 지향하는 유용성은 인간을 억압하며,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지가 마르쿠제의 『에로스 와 문명』에서 논의를 채색하고 있습니다.

5. 마르쿠제의 “위대한 거부” - 새로운 감성 혁명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소한 것, 하찮은 것만으로 삶을 영위해갈 수 있을까? 유용한 것은 인간을 억압

합니다. 그러나 그 억압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미적 실존**의 개념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 개념은 비시간적이고 비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적 변혁의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눈에 보이는 역사에 아로 새겨 넣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반전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계속 소외되고 억압되어야 한다고는 말할 순 없습니다. <유용한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킨다는 명제>와 <인간은 억압과 소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가 지금 여기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것은 여러 모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문명화를 돕습니다. 어떠한 것이 유용하고, 어떠한 것이 유용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키는 척도입니다. 그러나 그 유용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여백에서 떠돌아다님으로써 그 사회 자체를 회의케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목민(nomad)처럼 기존 사회의 질서와 제도와 사람들의 정착화를 위협합니다.

유목민처럼 떠도는 떠돌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유용성의 거부입니다.⁶⁾ 이 위대한 거부에서 자유가 생겨납니다. 소위 행동의 자유와 상상력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떠돌이들이 사회에 정착되어 그 사회의 인식양태에 따라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데서 생겨납니다. 정착 속의 자유는 규범 내에서의 자유이며, 그런 의미에서 규제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떠돌이들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사회 제도에 종속된 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떠돌이의 자유는, 안에서만 들여다보면 기존 질서의 파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밖에서 들여다보면 기존 질서가 갖고 있는 모순의 실제적 현현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떠돌이들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의 중요한 관건을 이룹니다. 밀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창조적 소수자의 비() 독단적 사유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떠돌이들이 없는 한, 닫힌 사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현하는 자유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사회의 발전은 없습니다. 떠돌이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씨앗입니다. 그들의 자유의 의미를 지성적으로 규명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사회는 억압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씩 더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는 예언자이고, 제도적 자유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는 치료자입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용한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떠돌이의 즐거움입니다. 무용한 것은, 사회 제도의 여백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떠돌이의 즐거움을 줍니다. ('대학에 가면 아무런 강제나 조건 달린 보상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의 즐거움, 혹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상기해 보시지요.) 예컨대, 예술이 자유로운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식이 되어버려 제도적 자유 속에 합류된 예술은 이미 진정한 예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술은(크게 보면 인문학도) 본질적으로 무용한 것이며,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자유로운 예술의 세계를 억압 없는 세계의 징표 그 자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예술이 고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용한 것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줍니다. 아니, 즐거움과 아름다움 자체가 무용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떠돌이의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⁷⁾ 한국에서 '예언자'와 '치료자'에 대한 대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각자 판단해 보시길!

6) 이 부분의 내용과 이하의 내용은 김현, 바슐라르와 마르쿠제의 두 문단의 설명, 『현대 문학의 위상(문학과지성)』에 의존해서 작성된 글임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떠돌이의 자유를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쿠제가 생각하는 해방의 조건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현상의 극복도 가능할 것임으로 과잉억압이 장기간 진행되면 어떤 현상이 초래되는지, 그리고 그가 강조한 <새로운 감성>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르쿠제가 주목한 과잉억압에 따른 현상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⁷⁾

첫째, 노동을 착취하는 과잉억압이 심한 사회일수록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의 성기 집중화>가 심해집니다.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성기 외의 신체나 사물에 리비도를 투사하는 행위를 노동 본위의 사회에서 성도 착중이라고 단죄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리비도의 특징 부위 집중화는, 성기 이외의 나머지 육체를 전부 비성화함으로써 노동의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리비도의 공간적 축소(성기 집중)는 또한 리비도의 시간적 축소(성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충분한 노동시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차원적 사회가 강요하는 소외의 고통 속에서 **노동은 현대인을 한낱 일의 도구로, 사회제도의 한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문명의 건설을 위한 과잉억압은 거꾸로 문명의 파멸을 초래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억압이 기본 억압에 그치는 한 생명본능과 죽음본능은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소외된 노동을 얻어내기 위한 과잉억압이 발생하면, 두 본능을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파괴적인 죽음본능이 강해지면서 증오와 부정이 쾌락의 계기가 되고 심지어 삶의 목적이 됨으로서 결국 **문명 파괴의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증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자연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셋째, 과잉억압 사회에서는 **에로스가 로고스에 흡수됨으로써 만족과 행복이 인간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더욱이 로고스가 점차 본능을 억제하여 노동력으로 승화시키려는 기술적-도구적 이성으로 축소되는 현실에서 지배를 위한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는 더 많은 과잉억압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대목은 마르쿠제가 문명의 성과를 모두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명의 성과 자체는 수행원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본능의 억압적 유용화를 낳은 것으로 만드는 듯하다(210쪽).”

마르쿠제는 이런 기존 질서를 극복하려는 위대한 거부, 실제적 혁명 행위에 앞서는 의식의 혁명, 욕망 구조의 변형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해방의 가능성을, 현실을 거부하는 의식과 본능 구조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혁명은 먼저 새로운 인간형의 출발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인간형의 특징은 i) 먼저 기존의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ii) 지배계급의 욕망을 포함하여 현행의 욕망 충족의 양식을 답습하지 않으며 iii) 생산 장치의 율동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운동의 놀이를 즐기며 작업하는 인간입니다. 요컨대, 마르쿠제에게 억압 없는 문명 건설의 전제는 <새로운 감성 new sensibility>을 갖춘 주체의 생성과 출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문명 사회에서 과연 누가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말년의 마르쿠제가 보기에, 일차원적 사회에서 혁명적 변혁을 성취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사회에 이미 동화되어 버렸고, 학생은 혁명의 ‘서곡’이나 ‘축매’는 될 수 있지만 학생운동 자체가 혁명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이들 외에, 흑인들의 민권운동, 실업자 시위, 반전 운동, 제3세계 민중 운동에서도 한 시대의 종말의 징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종말이 곧바로 보다 나은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존의 자본주의체제의 경제적-기술적 효력이 너무도 막강해서 마지막에는 국외자도 체제 안으로 흡수해 버릴 수도 있음을 마르쿠제는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죽는 날까지 혁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문명과 에로스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소망했으나 그것의 실현을 확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에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 역사는 보험회사가 아니다.”

7) 이에 관해서는 유기환, 에로스와 문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바타이유와 마르쿠제

이제껏 살펴본 마르쿠제의 전언이 인간의 의지와 완전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라고 느끼는 독자분도 있을 듯합니다. 오히려 당연히 그리 느낄 만합니다.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에 대해서 많은 논평자들도 그런 비판을 했으니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쿠제의 <인간해방의 미적 프로젝트>가 <전 인류 human beings as a whole>를 대상으로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자신이, 욕망을 억압하는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로스를 해방해야 한다는 마르쿠제의 생물학적 혁명론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대상을 <전 인류>에서 <나 개인>으로 한정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은 과연 아름다운가? **나는** 억압과 소외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나에게 '인류의 삶과 감성'을 바꿀 힘은 없다고 할지언정 '나의 삶과 감성'을 바꿀 힘은 있지 않을까? 나에게 기존의 역사를 억압 없는 인류 역사로 바꿀 힘은 없을지라도, 내 삶이 나에게만큼은 '아름다운 역사'가 되도록 바꿀 여지는 있는 게 아닐까?" 아니, 마르쿠제의 전언을 사사롭게 받아들여 되새겨본다면 (비록 내게 아무런 예술적 재주가 없을지언정) **내 삶만큼은 예술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나-는-과-연-느-끼-는-가?**